

부활절 제3주 (나해)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 내적 침묵기도 | Centering Prayer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오시도록 청합니다. 침묵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작아지고 주님의 활동하심이 커지면서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되고, 그분의 이끄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영적 자유와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 ①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허리를 펴고 자세를 편하게 잡습니다.
- ②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 ③ 잡념이 생길 때에는 사로잡히지 말고 물 흐르듯 흘려보냅니다. 이때 거룩한 단어(예: 하나님, 주님, 사랑, 평화, 예수 등)를 부드럽게 떠올림으로써 기도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 ④ 적어도 20분간 침묵으로 하나님 현존 앞에 머물습니다.
- ⑤ 기도가 끝나면 2-3분 동안 기도 속에서 천천히 나옵니다.

■ 떼제 찬양 ☞10분 ■ 읽기 | Lectio ☞20분

사도행전 | 행 3:12-19

-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 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응송 | 시 4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서신 | 요일 3:1-7

-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복음 | 눅 24:36-48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 묵상 | Meditatio  20분

■ 기도 | Oratio  10분

■ 나눔 |  10분

■ 관상 | Contemplatio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지향하는 기도가 계속되게 합니다.

성서일과 주제 : 부활의 증인 된 삶

사도행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3:14, 15)고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24:48)는 말씀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감격스럽다. 비겁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지금 스스로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서신서

사도 요한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3:3) 즉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당신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다.

복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눅 24:44, 45)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은 당부하시는 이유는 보고 깨달아야만 박해와 죽음에 맞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응 송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시 4:3)라고 노래한다. 경건은 부활의 확신에서 비롯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완성된다.